



프로현역 및 은퇴선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한 2013 야구대제전은 12일 동성고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결승전 후 동성고와 성남고 선수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포함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이원석 “이젠 두산 유니폼 입고 우승”

동성고 야구대제전 우승 이끈 이원석

결승전 공수 맹활약...OB최우수선수상 “모교 후배들 삼금 1000만원 받아 기뻐 부상 완쾌...내년 KS 우승하고 오겠다”

‘2013 야구대제전’에서 광주동성고를 정상에 이끈 이원석(27·두산)은 “우승 부상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1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동성고는 성남고에 7-3으로 승리했다. 이원석은 1회초 희생플라이로 선취 타점을 올린 데 이어 3회초 3-0으로 달아나는 솔로홈런까지 날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5회말 수비 1사 1·3루에서는 강습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하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대회 내내 이원석은 팀이 필요한 순간 주 포지션인 3루는 물론 중견수, 1루수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뛰기도 했다. 우승이 확정된 후 졸업생(OB) 최우수선수로 선출된 이원석은 “고등학교 때 두 번 전국

대회 우승을 했다. 9년 만에 다시 동성고 유니폼을 입고 정상에 올랐다. 32년 만에 부활한 첫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큰 의미를 느낀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상성과 치른 한국시리즈 7차전 혈투에서 옆구리 부상을 당했던 이원석은 그동안 충분한 휴식과 재활을 했다. 준우승의 아쉬움이 컸지만 내년에는 동성고에 이어 두산 유니폼을 입고 정상에 서고 싶은 바람도 전했다.

이원석은 “옆구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동성고 유니폼을 입고 정상에 올랐다. 이제 두산 유니폼 차레가 됐다”고 기분 좋은 다짐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꼭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고 다시 이번 대회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포함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2013년 야구대제전 최종성적 및 개인상 수상자

- ▲우승=동성고 ▲준우승=성남고 ▲3위=세광고, 부산고 ▲최우수선수상=윤도경(동성고 포수)
- ▲OB최우수선수상=이원석(동성고 1루수)
- ▲우수투수상=김홍빈(동성고 투수) ▲감투상=호석화(성남고 투수) ▲수훈상=고영우(동성고 유격수) ▲미기상=김종원(성남고 3루수)



광주 동성고 졸업생(OB) 이원석이 12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2013 야구대제전 결승전에서 맹타를 휘두르면서 OB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포함 | 박화용 기자

야구대제전 부활 주도한 대한야구협회 이병석 회장

“은퇴선수들까지 투혼 발휘 내년엔 KS 직후 개최 기대”

대한야구협회(KBA) 이병석 회장(국회부의장·사진)은 12일 ‘2013 야구대제전’ 폐막에 맞춰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호응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대제전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자평한다”며 “자신을 키워준 모교를 위해 투혼을 아끼지 않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대한야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 회장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부활, 대한야구협회장 전국고교야구대회 신설과 함께 32년 만의 야구대제전 부활을 주도했다. 취임 전 약속대로 2013년을 ‘아마야구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취임 이후 한국 고교야구는 사상 처음 ‘60개팀 시대’를 열기도 했다.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야구대제전이 열린 포항구장을 세 번이나 찾아 선수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한 이 회장은 “은퇴선수들까지 함께해 모교의 명예를 위해 땀을 흘린, 이런 뜻 깊은 야구대제전이 왜 30년 넘게 열리지 않았는지 의아했다”며 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내년에는 야구대제전의 취지와 의의를 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 야구인들의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참가하지 못했던 팀 중에서도 내년 대회에는 반드시 나오겠다는 팀들도 벌써 여러 팀”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선수협회 등과 추후 협의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구대제전이 한국시리즈 종료 직후에 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7일 ‘야구인의 밤’ 행사를 끝으로 올 아마추어 야구 공식 행사를 마감하는 이 회장은 “취임 후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체적인 틀을 잡고 세부 콘텐츠를 보강해 내년에도 한국 아마야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함 | 김도현 기자 dc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행복한 재능기부” 최경환 NC 코치의 모교사랑

(결승전 3타수 2안타 1타점)

은퇴한 지 4년...성남고 후배들 위해 최선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 대제전’은 이강돈(북일고 감독), 장채근(홍익대 감독) 등 왕년의 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뭘 레벨이 아니다. 프로경기 같다”며 수준 높은 경기에 박수를 쳤다. 12일 동성고-성남고의 결승전을 중계한 김재현 SBS ESPN 해설위원은 “한국시리즈 같다”며 진지한 분위기를 전했다.



로 맹활약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 둘, 현역에서 은퇴한 지 4년이 지

난 최경환 NC 코치였다.

최 코치는 모교 성남고 유니폼을 입고 매 경기 안타와 타점을 올리며 타선을 이끌었다. 40대 현역 코치의 투혼을 보며 성남고 선수들은 하나로 뭉쳤고, 강팀들을 연이어 격파하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준우승에 그쳤지만 대회에서 가장 돋보인 타자 중 한명은 최 코치였다.

최 코치가 그토록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다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12일 결승전을 치른 포항구장에서 그는 “우승하면 1000만원, 준우승은 500만원의 학교발전기

금을 부상으로 받는다. 항상 모교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운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당장 홀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선배들이 함께 모여 후배들을 위해 뛰는 것에 큰 의미가 느껴진다. 행복한 재능기부다”며 웃었다.

“나이 많은 선배가 최선을 다해야 다른 후배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냐”며 그라운드에서 뛰고 또 뛰 최 코치는 동문들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하며 오뎀이 땀으로 만든 큰 선물을 모교에 전달했다.

포함 | 이경호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특허출원

타시던차 보상판매

www.dhmotors.co.kr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엔진방식 150cc 농사용 ATV

- 쏘인트렉 구동
- 자동덤프기능
- 힘이 좋은 감속 대우장착

다들 검색에서 **대한스쿠피아**를 치세요.

부모님 효도선물

SE3(전기 충전식)

지역 대리점 모집

- 한달 전기료 : 5~6천원대
- 자동덤프기능, 윈도우 브러쉬기능
- 친환경 전동차로 유지비 부담없이 누구나 손쉽게 운전가능

(주)대한스쿠피아 공 장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312-11 대표전화 **1577-0665 / 1577-3896**